

ODA 리포트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지 26
발행인 김종덕
담당 전혜은, 허재영, 김주형, 한다정, 이민정, 임해주,
김양희, 차보민, 이보람
감수 한덕훈
전화번호 051-797-4904 / 051-797-4415
E-mail hjy1@kmi.re.kr / odacenter@kmi.re.kr
발간년월 2024년 4월

CONTENTS

- ① 국제개발협력 동향 | ② SDGs 관련 국제 동향 | ③ 전문가 칼럼 | ④ 해양수산 ODA 사업 현황 | ⑤ 주요 행사



1 국제개발협력 동향

OXFAM

남부 아프리카 콜레라 창궐 1)

- 옥스팜은 말라위, 모잠비크, 잠비아, 짐바브웨에서 콜레라 환자가 전례 없이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 코로나19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콜레라 예방 및 관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취약 지역 대다수가 콜레라 예방에 필수적인 깨끗한 물과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 유니세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말라위, 모잠비크, 짐바브웨 등 남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콜레라가 발병해 20만 명 이상 환자와 3천 명 넘는 사망자가 보고됐다.
- 잠비아 공중 보건연구소에 따르면 작년 10월 잠비아에서 콜레라 발병이 처음 보고된 이래 전날까지 1만 400명의 환자가 발생해 41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잠비아 정부는 수도 루사카의 대형 축구 경기장을 치료 시설로 개조하는 한편 전국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다.
- Oxfam 남부 아프리카 프로그램 책임자(Machinda Marongwe)는 “전례 없는 발병률과 사망률은 공중보건 체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발병 규모가 클수록 통제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설명했다.
- Oxfam의 파트너인 잠비아 재단(Keepers Zambia Foundation)의 Ezra Banda는 “현재 많은 잠비아 국민들이 안고 있는 과제는 콜레라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 격차이며 이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은 물론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여 더욱 악화됩니다.”라고 강조했다.
- 지난해 발병 이후 옥스팜은 말라위, 모잠비크, 잠비아, 짐바브웨의 현지 파트너,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를 지원해 왔다. 공중 보건 시스템 강화를 위해 태양열 펌프와 분배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1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위생 키트와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고 있다.
- 그러나 옥스팜은 대응 규모를 확대하려면 300만 달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허재영 전문연구원
hgy1@kmi.re.kr

1) 옥스팜 보도자료, <https://www.oxfam.org/en/press-releases/southern-african-countries-face-terrifying-and-overwhelming-cholera-outbreak-covid>.(접속일: 2024.03.10.)

OXFAM

동아프리카 400만 명, 심각한 기아 시달려²⁾

- 대규모 홍수로 케냐,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전역의 광대한 농경지가 침수되었다. 옥스팜은 인도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4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경고했다.
- 10월에 시작된 폭우로 인해 케냐,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등 나라에서 수백 명이 사망하고 수천 채의 가옥이 휩쓸려 갔으며 수천 헥타르의 농작물이 파괴되었다.
- 소말리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 중 하나인 바르드히리(Bardhere)의 농부인 아단 하산(Adan Hassan)은 “우리는 농작물을 모두 잃었습니다. 몇 달 안에 수확할 토마토, 수박, 콩, 당근이 모두 쓸려갔습니다.”라는 점을 언급했다.
- 옥스팜(Oxfam) 아프리카 책임자(Fati N'zi-Hassane)는 “동아프리카의 기후변화 규모와 빈도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와 지역사회에 더욱 고통을 주고 있다. 기후 위기 취약국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한 선진국의 자금 공여 약속을 지켜 지역 사회의 적응 및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허재영 전문연구원
hgy1@kmi.re.kr

WFP

WFP, 가자지구 주민 절반이 굶주리고 있다³⁾

- WFP는 가자지구에서 계속되는 전투로 인해 가자지구 인구의 절반이 굶주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 현재 가자 지구는 실질적으로 식량·물 공급이 부재한 상황이며 필요량의 극히 일부만이 국경을 지나 들어오는 상황이다.

2) 옥스팜 보도자료, <https://www.oxfam.org/en/press-releases/east-africas-floods-decimate-almost-entire-season-harvest-and-leave-over-four>(접속일: 2024.03.12.)

3) 유엔세계식량계획 보도자료, <https://www.wfp.org/news/preventing-famine-and-deadly-disease-outbreaks-gaza-require-faster-safer-aid-access-and-more>(접속일: 2024.03.12.)

- WFP 이사(Cindy McCain)는 "현 국경 통과로 현재의 기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유일한 희망은 가자지구로 식량을 공급할 인도주의적 접근을 위한 또 다른 안전 통로를 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근의 위험이 증가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치명적인 질병에 노출됨에 따라 유엔 기구들은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흐름에 근본적인 조치 변화가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허재영 전문연구원
hgy1@kmi.re.kr

Save the Children

필리핀 남부, 홍수와 산사태로 인해 약 10만 가구 이재민 발생⁴⁾

- 최근 몇 주 동안 폭우가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지역을 강타하여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발생한 규모 5.2의 지진은 일부 지역에서의 구조 활동을 좌절시켰다. 산사태와 홍수로 인해 약 97,000가구가 지역을 떠나야 했다.
- 필리핀 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협의회(National Disaster Risk Reduction and Management Council)에 따르면, 홍수와 산사태로 인해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필수 물 공급과 의료 서비스가 중단되어 공중 보건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한다.
- 세이브더칠드런 필리핀 CEO 애티(Atty). Alberto Muyot는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린이와 가족에게 필요한 도움을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행동하고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언급했다.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허재영 전문연구원
hgy1@kmi.re.kr

4) 세이브더칠드런 보도자료, <https://www.icrc.org/en/document/burkina-faso-food-water-and-health-care-are-scarce8>. 2023. 11.28.(접속일: 2024.03.07.)

2 SDGs 관련 국제 동향

FAO

FAO, 농식품 관련 기후변화 행동 로드맵 첫 제시¹⁾

- (동향) FAO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파리기후협약의 1.5도 목표를 달성과 기아 종식 등을 위한 농식품 관련 기후변화 행동 로드맵을 발표했다.
 -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1차 당사국총회(COP) 이래 기후총회에서 농식품 관련 로드맵이 나온 것은 이번이 최초이며,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식품 분야에 필요한 핵심 목표를 담고 있다.
 - 2058년 세계 인구 100억 명 돌파와 식량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식량난과 기후대응을 동시에 해결할 방법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배경) FAO에 따르면 기후 탄력성을 갖춘 식품 시스템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되 식량 생산량은 늘려 전 세계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야 된다고 권고했다.
 - FAO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세계 인구 약 7억 3,500만 명이 기아에 직면했다. 여기에 지정학적 갈등의 여파로 식량공급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따라서 미래 식량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농식품 분야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FAO는 파리기후협약의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진국의 육류 과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중저소득국가와 군소도서국가 등 영양공급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식량 공급을 증대하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FAO는 강조하고 있다.
 - 또한 선진국의 음식물 쓰레기와 비료 남용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저소득 국가는 양질의 영양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1) 데벡스 뉴스레터 자료 , <https://www.devex.com/news/fao-s-net-zero-plan-for-food-systems-lacks-ambition-experts-say-106787> 2023.12.11.(접속일: 2024.03.11.)

- (주요 내용) FAO는 식량안보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10개 분야 20개 이정표를 제시했다.²⁾
 - 수산업 및 양식업 측면에서 2030년까지 어업 100% 효율적 관리 및 IUU 활동 단계적 퇴출, 2050년까지 전 세계 지속가능한 양식업의 생산량 2020년 대비 최소 75% 향상 목표로 설정했다.
 - 식량안보 측면에서 2030년까지 만성 영양실조 근절, 2020년 대비 2040년까지 건강한 식단 접근이 어려운 인구 50% 감소, 2050년까지 모든 인구 건강한 식단 섭취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는 2050년까지 작물 생산성 연간 1.5% 향상, 가축 생산성 연간 1.7% 향상, 가축 메탄 배출량 연간 3% 감축 등이 제시됐다.

FAO 로드맵 2030-2050 이정표

| 분야 | 연도 | 목표 |
|------------|------|-----------------------------------|
| 축산 | 2030 | 가축부문 메탄 배출량 2020년 대비 25% 감축 |
| | 2050 | 가축 총생산성 연간 1.7%씩 증가 |
| 수산업 및 양식업 | 2030 | 어업 100% 효율적 관리 및 IUU 활동 단계적 퇴출 |
| | 2050 | 지속가능한 양식업의 생산량 2020년 대비 최소 75% 향상 |
| 농업 | 2030 | 전 세계 작물 총생산성 연간 1.5%씩 증가 |
| | 2050 | 저소득국가 작물 총생산성 연간 2.3%씩 증가 |
| 식단 | 2030 | 모든 국가에서 상황에 맞는 식이지침 개정 |
| | 2050 | 어린이 대상 식품 광고 제한 법률 제정 |
| 산림 및 습지 | 2030 | 전 세계 산림벌채 중립 달성 |
| | 2050 | 전 세계 산림벌채 금지 달성 등 |
| 토양 및 물 | 2030 | 안전하고 저렴한 식수에 대한 보편적 공평한 접근 |
| | 2050 | 농경지 및 목초지에서 이산화탄소 환산도 격리 |
| 식품 손실 및 폐기 | 2030 | 전 세계 1인당 식품 폐기물 50% 감축 |
| | 2050 | 바이오에너지 생산 등 순환형 바이오 경제 통합 |
| 청정에너지 | 2030 | 전통적 바이오매스 사용 제거 |
| | 2050 | 바이오에너지를 통해 연간 이산화탄소 12억 톤 포집 |
| 정책 | 2030 | 바이오에너지를 통해 연간 이산화탄소 12억 톤 포집 |
| | 2050 | 성별 생산성 격차 2020년 대비 50% 감소 |
| 데이터 | 2030 | 모든 농가 및 축산농가의 온실가스 모니터링 솔루션 접근 가능 |
| | 2050 | 모든 국가에서 농작물 및 가축의 총생산성 모니터링 |

2) 삼바 식품 및 기후센터(Shamba Centre for Food & Climate) 뉴스자료, <https://www.shambacentre.org/response-to-the-fao-roadmap-on-sdg2> 2023.12.20(접속일: 2024.03.12.)

- (정책시사점) FAO가 제시한 청사진은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변화 및 식량안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갈 방향을 제시 한 것으로 보인다.
 - FAO의 로드맵의 핵심은 2030년까지 기아를 해결하고 2050년까지 모든 인류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도록 하는 것이다.
 - 모두를 위한 건강한 식단에 집중하면 선진국은 동물성 식품 소비를 줄이고 저소득 국가는 건강한 음식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해 기후 대응과 보건 양쪽 모두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KMI 국제개발협력센터 허재영 전문연구원
hgy1@kmi.re.kr

3 전문가 칼럼

전경식 한국국제협력단 아프리카실장

2024년 한국국제협력단 예산, 아프리카 지원 전략 및 수산분야 사업기획 제안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은 1991년 설립된 외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우리 정부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집행하는 개발원조 전문기관입니다. 2024년 우리 정부의 ODA 예산은 총 6조 2,629억 원으로 46개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이 무상과 유상(차관), 1,976개 사업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 중, 개발도상국과의 양자 무상원조에는 3조 962억 원을 집행할 예정인데, KOICA는 약 43.4%에 해당하는 1조 2,978억 원을 집행하는 우리 정부의 대표적인 양자 무상원조 전문기관입니다. 참고로, KOICA는 약 1.2조 원의 정부 출연금에 더해, 약 7천억 원의 보조금을 해외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 분야에 추가로 집행할 예정이라, 2024년 중 집행할 총 예산은 2조 원이 약간 넘게 됩니다.

이러한 큰 규모의 예산을 KOICA는 국별협력사업, 다자협력사업, 민관협력사업, 기업협력사업, 연수생초청사업, 봉사단파견사업, 인도적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사업별로 500만 불 ~ 2천만 불을 다년간에 걸쳐 지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의 형태로 집행하는 국별협력사업으로 정부출연금의 약 67%인 약 8천억 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그간 지리적으로 우리 나라와 가까운 아시아 대륙을 대상으로 가장 큰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지만, 2024년에는 아프리카 3,066억 원, 아시아태평양 2,756억 원을 배정하여, 아프리카 대륙을 대상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의 개발원조 분야 최상위 기관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2023년 2월 의결한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을 통해 제시한 ‘아프리카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2019년 대비) 2030년까지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한다는 목표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적 증가와 더불어 질적인 측면에서 개발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해, KOICA는 국제사회의 SDGs, 우리 정부의 CPS(Country Partnership Strategy, 국별협력전략) 및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정부간 연합체인 AU(African Union, 아프리카연합)의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중장기적 개발 전략인 Agenda 2063에 기반하고, 동남, 중서, 북아프리카의 권역별 소득수준, 개발환경 및 개발수요 등을 분석하여 ‘대 아프리카 지역협력

전략(2020-2024)’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권역 및 국별 맞춤형 중점 지원 분야 및 과제를 제시하고, 특히 각 국가별로는 CP(Country Plan)를 수립하여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월에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2024 Korea-Africa Summit)’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우리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사이에도 다양한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협의와 기획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상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국가인 모잠비크,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각국 정부 마다 청색 경제(Blue Economy) 등 해양수산 분야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설명한 양적인 증대(예산)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국민들을 위해 정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기 위한 도움말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기획할 때는 우리 협력대상국 현지에서의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국제협력은 양 국가 간의 기술 교류, 국민 교류 혹은 경험 전수 등 활동(Activity) 자체에 의미를 두어도 되겠으나, 개발협력에서의 모든 활동은 협력대상국 현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기획해야,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20년 넘게 많은 국가에서 근무한 경험상, 현지의 기술 수준, 문화적 맥락, 업무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된 다수의 실패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ODA사업으로 항만을 건설한다고 할 때, 해당 지역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항만 건설 뿐인지,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 많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특히, 수혜자인 현지 주민 혹은 수출입 업자 등 항만 이용자들에 대한 직접 인터뷰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결하려는 문제가 물류 지체라면, 그 원인이 무역 문서 처리 지연인지, 적정한 하역설비 부족인지, 연계되는 도로/철도 부족인지 등에 따라, 무역 전산화, 설비 지원, 연계 교통망 확충 등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기획에 있어서 PDM(Project Design Matrix), 문제나무(Problem Tree) 분석, 변화이론(Theory of Change) 등 다양한 틀이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이겠습니다. 정확한 문제 식별을 바탕으로, 해결에 필요한 대안을 활동(Activity) 으로 제시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예산 등 자원을 투입물(Input)로 계산하며,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를 지표로 설정하는 것이 성과(Outcome) 관리로 이어지는 것이 ODA 사업 기획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식별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성과지표에 반영하는데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양수산 특히, 수산 분야에 대한 KOICA의 ODA 사업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2023년말 ‘KOICA 농촌개발 분야 SDGs-KOICA 성과프레임워크(SDGs-KOICA 성과지표/분야별 성과지표)’로 제시된 성과지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수산업 분야 KOICA ODA사업은 ‘지속가능한 농림수산업 생산 증대 및 시장성 강화’로 제시된 전략목표 하에, 주요 프로그램인 ‘농림수산업 생산성 강화 지원’과 ‘농림수산업 가치사슬 강화’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기준으로 제시된 SDGs 상 주요 산출(Output) 지표로는 ‘SDG 2.3.1, 노동단위당 생산 규모(농업, 축산업, 수산업 규모별)’, ‘SDG 2.3.1, 단위면적당 생산 규모(농업, 수산업 규모별)’가 있습니다. KOICA는 이를 바탕으로 ‘농업(축/수산업) 분야 생산성 및 가치사슬 역량강화 수혜자 수(명/성별분리)’, ‘농업(축/수산업) 투입재 또는 기자재 지원을 받은 수혜자 수(명/성별분리)’, ‘농업(축/수산업) 투입재 또는 기자재 지원 건(수)’, ‘신규 농지/초지(축산)/양식장 면적(ha)’, ‘운영 중인 농축수산업 관련 협동조합 조직의 조합원 수(명/성별분리통계)’, ‘농업(축/수산업) 관련 신규 투자 및 대출액’ 등과 더불어 ‘수산물 가공 처리량(ton)’을 산출지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KOICA의 수산 분야 사업으로는, 현지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성 강화 혹은 가치사슬 강화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생산규모를 늘리기 위한 수산물 가공 처리 능력 제고, 어민 대상 역량강화, 수산업 협동조합 설립, 양식장 건설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획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전경식 실장

〈주요 이력〉

- 현) 한국국제협력단 아프리카실장
- 전) 한국국제협력단 르완다사무소장, 농어촌개발팀장, 알제리사무소장 등
- 전) 삼성네트웍스 공공부문 영업대표

본 칼럼의 내용은 ODA 전문가로서의 의견으로 KMI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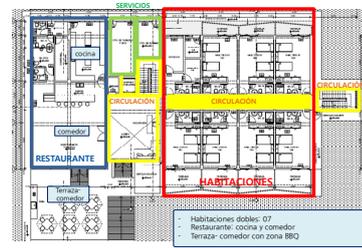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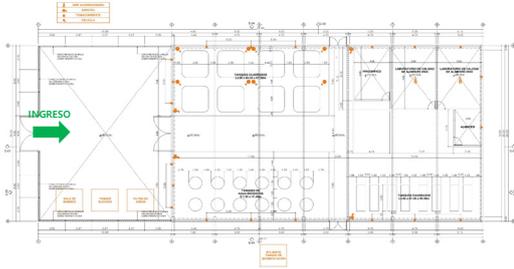
해양수산 ODA 사업 현황

페루

페루 기후변화 대응 수산양식교육 역량 강화사업

- 사업 목적
 - 페루 수산양식교육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페루 수산식량 자원 감소에 대응하고 페루 영세 어민 등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의 빈곤 극복에 기여함
- 사업 개요
 - 페루 수산양식교육을 위한 한·페루 수산양식교육센터 시설구축(교육연수동, 숙소동 및 실험실습동 총 3개동) 및 수산양식 프로그램 구축
 - 사업기간: 2022~2025년
 - 사업비: 60억 원
- 사업 대상
 - 페루 생산부 & IMARPE/페루 북부 비우라(Piura)주 세추라(Sechura)지역 양식단지 설립부지 내
- 추진현황(2023년)
 - '23년 11월: '23년도 사업 착수
 - '23년 12월: (도화엔지니어링) 페루 수산양식교육센터 실시설계 및 실습동 건설 용역 착수
 - '24년 2월: (KIOST) 페루 수산양식교육 초급과정 시범교육을 위한 현지 조사, 실습동 설계 관련 회의
 - '24년 2월: 현지 사업 설명회 개최

● 관련사진



한·페루 수산양식교육센터 실시설계 도면 초안(수행 중)



페루 수산양식교육 초급과정 시범교육을 위한 현지 조사 및 실습동 설계 관련 회의



페루 ODA 현지 사업 설명회 개최

● 향후계획(2024년)

- '24년 4월: 페루 수산양식교육센터 실시설계
- '24년 5월: 페루 수산양식교육센터 실습동 착공
- '24년 7월: 페루 수산양식교육 초급과정 시범교육

● 기대효과

- 페루 수산양식교육센터 건립 및 선진 어류양식 교육을 통해 중남미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및 지속적인 어류 양식 산업 발전 도모 가능
- 한·페루 수산양식교육센터(가칭)를 통해 한국의 선진화된 해면 어류 양식 기술 및 경험 전수 등 일회성 연수가 아닌 중장기적 교육훈련을 통해 기후변화에 계속적으로 대응 가능한 능력 배양 기대
- 수원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기후변동 취약성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페루 내 해면어류 양식산업 진흥 및 수산자원 생산량 증대를 통해 기후변화에 효과적·효율적으로 대응 가능
- 육상기반 해면어류 양식 산업화 기술을 개발하고, 종자 생산, 중간육성 및 성어 양성, 사육 환경관리, 질병관리 등의 기술을 전문적으로 교육 훈련하여 전문인력을 양성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준용 책임연구원
jypark@kiost.ac.kr

마셜제도

해수온도차발전 및 배출수를 이용한 마셜아일랜드 SDGs 역량 강화사업

- 사업 목적
 - 해수온도차발전 및 배출수 이용(냉방, 담수화, 수경재배 등)을 통한 마셜제도 해촌마을의 에너지(Energy), 식수(Water), 식량(Food)에 대한 자급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기여
- 사업 개요
 - 해수온도차를 이용한 발전, 냉방, 담수화 및 수경재배 등 리빙랩형 시범기반 구축, 개발-이용-관리에 대한 교육(SSUA4RMI, Sustainable Seawater Utilization Academy for Republic of the Marshall Islands)과 실습을 통한 역량강화, 생활이용, 시범판매 체험
 - 사업기간: 2023~2026년
 - 사업비: 66억 원
- 사업 대상
 - 마셜제도 마주로(Majuro) CMI(College of the Marshall Islands) Arrak 캠퍼스 일대



마셜제도 마주로 환초 및 Arrak 캠퍼스

● 추진현황(2023~2024년)

- 2023년 9월: 사업 착수
- 2023년 10월: 마셜제도 Arrak 캠퍼스 외해 및 내해 해양물리, 해저지형 조사, 교육프로그램 커리큘럼 작성
- 2023년 12월: 마셜제도 CMI와 ODA 위탁연구 계약 체결
- 2024년 1월: SSUA4RMI 1차 교육 수행, Arrak 캠퍼스 외해 및 내해 해양생물상조사

● 관련사진



마주로 해양조사 및 전력공급 현황 조사



SSUA4RMI 1차 교육(강의 및 실습)

● 향후계획(2024년)

- 3월: SSUA4RMI 2차 교육 및 실습, Arrak 캠퍼스 및 주변 민가의 에너지 사용 현황 조사
- 5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및 CMI 업무협약(MOU) 체결, 해저지형 및 수질조사, 제 3차 SSUA4RMI 교육
- 7월: 환경영향평가(EIA)보고서 제출 및 50kW급 해수온도차발전 및 150RT급 해수냉방 시스템 등 설계 완료

● 기대효과

- 해수온도차발전, 해수냉방을 통한 친환경 전력 생산,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 마셜제도 내 친환경에너지 공급기반 조성과 이를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 해수온도차발전 배출수 및 잉여에너지를 활용한 해수담수화, 식량 생산활용 등 도서국가에 부족한 물, 식량 자급화 및 일자리 창출
- 태평양 섬 국가에 해수온도차발전 및 해수냉방 플랜트 적용, 운전 데이터 확보를 통한 트랙 레코드 축적 및 기술 고도화 등 태평양지역 기후변화 대응기술 확산 지원
- 해수온도차발전, 해수냉방, 해수담수화, 수경재배 등 마셜제도를 포함한 태평양지역의 해수에너지 기술 전문인력 양성 등 지속가능발전(SDGs) 역량 강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김현주 책임연구원
hyeonju@kriso.re.kr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양식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기술지원 사업

- 사업 목적
 - 新남방정책에 부응하는 한-인도네시아 수산분야 교류 및 협력 강화를 통해 인도네시아 수산양식(어류, 해조류)분야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시설 현대화 지원 및 양식 기술 이전
- 사업 개요
 - 인도네시아 고유 수산생물(나플레옹피쉬, 유큐마)의 양식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시설구축 및 인력양성
 - 사업기간: 2023.6~2027.12
 - 사업비: 70억 원
- 사업 대상
 - 인도네시아 바탐 해양양식어업센터, 케이섬 일대



한·인니 사업대상지

● 추진현황(2023년)

- 4월: 사업대상지 양식 현지 실태조사(사업지, 협력기관 선정 및 사업규모 협의)
- 6월 인도네시아 ODA 사업 용역 계약 체결
- 8월: 1차 전문가 파견(현장조사 및 1차년도 사업 세부내용 협의)
- 9월: 착수보고회
- 10월: 해양수산부와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간 IA체결, 초청 연수(관리자 과정)
- 11월: 2차 전문가 파견(해양투자조정부 업무협의, 현지 시공사 협의) 및 ToR 체결, 바탐 해양양식연구센터 나플레옹피쉬 입식

● 관련 사진



해양투자조정부 업무협의



바탐 해양양식연구센터 업무협의



바탐 해양양식어업센터 종자 생산동 현지 조사





케이섬 해조류 조직배양실 및 건조시설 대상지



해양수산부, 해양투자조정부 IA체결



관리자 과정 초청연수

- 향후계획(2024년)
 - 바탐섬 시설 현대화 설계도 및 리모델링 계획 확정안을 기반으로 한 착공 및 기자재 지원
 - 나폴레옹피쉬 양식기술개발을 위한 번식 및 성장 특성 조사
 -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자 과정 초청 연수(10명/15일)
- 기대효과
 - 인도네시아 사업지역의 양식 생산성 증대를 통한 어업인 소득 증가
 - 인도네시아 수산양식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내 관련 업계(사료, 기자재 업체 등) 해외 진출 교두보 및 시장 확대 기회 창출
 - 한-인니 협력 강화 기반 마련

국립수산물연구원 김신권 해양수산연구관
agemang@korea.kr

5 주요 행사



향후 계획

제1차 가나 여성어업인 가공 및 유통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기간 및 장소
 - 24년 4월 24일(수) ~ 25일 (목) / 가나공화국 아크라
- 참여기관 및 참석자(잠정)
 - (주최 및 주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가나 Fisheries Commission(FC)
 - (참석자) 가나 아크라 및 테마 지역 어업인협회 소속 여성어업인 50명
 - (참여기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가나사무소, 미국국제개발협력처(USAID), 가나대학교, 스페인 라스팔마스데그란카나리아대학교(ULPGC) 및 대학연구기관 ECO AQUA, Ghana Fisheries Recovery Activity(GFRAC, NGO), Development Action Association(DAA, NGO)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등
 - (목적) 가나 여성어업인의 수산 가공 및 유통 관행 개선과 여성어업인 및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도모하여 독립적인 경제주체이자 의사결정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주요내용
 -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공유 : 여성어업인협회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참여 유도
 - 역량강화 수요조사 결과 발표 : 현지 여성어업인의 실수요를 분석하여 발표 및 의견수렴
 - 수산 가공 및 유통 관행 개선 세션 : 식품위생교육, 수산물 가공기술 및 인증제 소개
 - 여성어업인 및 지역사회 역량강화 세션 : 성인지교육, 가족보건교육,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 패널 토론 및 만족도 조사 : 제1차 워크숍 결과 환류를 통해 전체 사업계획에 반영

2024년도 해양수산 국제협력 컨퍼런스 (KICCOF)

● 일시 및 장소

- 2024년 6월 5일(수) 14:00~19:30 / 서울

*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24.6.4/ 서울)」 부대 행사로 개최

● 목적 및 방향

- (목적) 아프리카와 해양수산 협력 사업 논의의 장 마련하여 협력 강화에 기여
- (방향) 2024 BADA*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아프리카 해양수산 ODA 사업 발굴 진행

* BADA(Best Achievement program for oceans and fisheries ODA) : 해양수산정책 성과 확산 프로그램으로, 수원국 공무원을 초청하여 강의, 현장 견학 등 제공하고 해양과학, 수산양식, 해양환경 등 국내 유관 기관과 매칭 후 수원국 맞춤형 컨설팅 제공

** 6.4.(화) BADA 프로그램/ 6.5.(수) KICCOF 2024/ 6.6.(목) BADA 프로그램

● 참여기관 및 참석자

- (주최 및 주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 (참여기관) 국·내외 해양수산 유관 기관
- (참석자) 아프리카 10개국 주요 인사 및 해양수산 부처 관계자 등 약 100명(예정)

● 주요내용

- Korea-Ocean Economy Initiative(K-OEI)* 소개
 - * 해양수산 국제협력 비전
- 한국 해양수산 ODA 협력 현황과 방향 소개
- 아프리카가 직면한 해양수산분야 도전 과제 발표
- 한국과의 향후 협력 방안 논의

2024년 CAPFISH 글로벌 여름 아카데미

- 일정

- 2024년 11월 / 피지 개최 예정

- 목적 및 방향

- (목적) 개발도상국의 IUU 어업 근절을 위한 역량 구축*

* WMU(세계해사대학)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의 자금을 지원받아 CAPFISH(A Capacity-Building Project to Progress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to Combat IUU Fishing) 프로그램을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2년 동안 4개의 워크숍과 1회의 Summer Academy 개최 및 2권의 교육 교재 제작을 통해 개발도상국에서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역량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 옴

- (방향) 본 프로젝트의 5개년 ODA 다자성 양자 사업화* (2024-2028)

* 동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업 규모 확대를 위하여 지난해 CAPFISH 프로젝트의 5개년 다자성 양자 ODA 사업을 추진하였고, 23년 말 국회 심사 최종 승인을 받아 '24년도부터 해마다 다른 집중 권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IUU어업 근절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CAPFISH Summer Academy가 진행될 예정

- 참석대상

- (교육 대상) 남태평양 지역의 수산 관련 종사자, 공무원 등 15명
- (발표 및 토론자) UN, IGO, NGO, 학계, 해군, 해양경찰, 국가 공무원 등 다양한 연사 초청을 통한 프로그램 구성 예정
- 주최 및 주관: 해양수산부, 세계해사대(WMU),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 주요내용

- 남태평양 지역의 원양어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
- 도서국들의 IUU 어업 관련 문제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 기대효과

- IUU어업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 및 집행을 위한 대응 방안의 효과적 확산
- 글로벌 전역별 프로그램을 통해 각 권역 국가의 IUU 어업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및 도출 촉진
- 담당 공무원 교육을 통한 각 국가의 IUU어업 대응 이행력 제고

해양수산 ODA 리포트는

해양수산부 ODA 전문기관인 KMI 국제개발협력센터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국내외 ODA 정책, SDGs, 국제기구, 해외정부의 동향 및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우수사례와 관련된 소식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연구진

전혜은 국제개발협력센터장

허재영 국제개발협력 전문연구원

김주형 국제개발협력 전문연구원

한다정 국제개발협력 연구원

이민정 국제개발협력 연구원

임해주 국제개발협력 연구원

김양희 국제개발협력 연구원

차보민 국제개발협력 전문사무원

이보람 국제개발협력 사무원

감리

한덕훈 대외협력사업부장

해양수산

ODA 리포트

발행일 2024년 4월 9일

편집·발행일 김중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외협력사업부 국제개발협력센터
부산시 남구 신선로 365 부경대용당캠퍼스 한미서관 12층
KMI 한미르 해양수산협력센터
TEL) 051-797-4904 FAX) 051-797-4415

편집디자인 애드원플러스 TEL) 070-4390-385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